

여성 구두에서 발암유해물질 검출

6가크로뮴, 기준치에 비해 37배 많아 ... 안전포털에 리콜제품 공개

여성 구두에서 발암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.

기술표준원은 최근 전기장판 등 공산품 238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, W사의 전기장판, I사의 여성용 구두 등 14개 공산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했다고 2월6일 발표했다.

전기장판 1개와 전기요 3개는 충전부가 노출돼 사용하면 감전위험이 있고, 전기매트 2개와 전기방석 3개는 열선온도 기준치 초과로 화상 및 감전, 화재 위험이 있었다고 기술표준원은 밝혔다.

여성구두 1개는 발암유해물질인 6가크로뮴(Cr 6+)이 기준치보다 무려 37배나 높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.

리콜조치된 해당제품은 유통매장에서 수거되며 소비자는 이미 구매한 관련제품에 대해 수리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.

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(www.safetykorea.kr)에 공개한다.

한편, 기술표준원은 안정성 부적합률이 높은 전기장판, 전기매트, 전기요, 전기방석 등 전기장판류를 2013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2/06>